



“감빡한 신용카드 없나 찾아보세요”

금감원, 통합조회 서비스 개시

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카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문을 연다. 혹시 존재를 잊고 있었던 신용카드가 없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핀인'에서 신용카드 보유개수, 결제 예정금액, 사용금액, 포인트 내역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총 1억2266만개에 달한다. 국민 1인당 평균 3.6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도 822만개나 된다. 전체의 8.0%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카드 보유현황이나 사용내역 등을 일괄조회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금감원의 신용카드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15개 카드사 내역이 제공된다. 제공 정보는 카드정보와 포인트정보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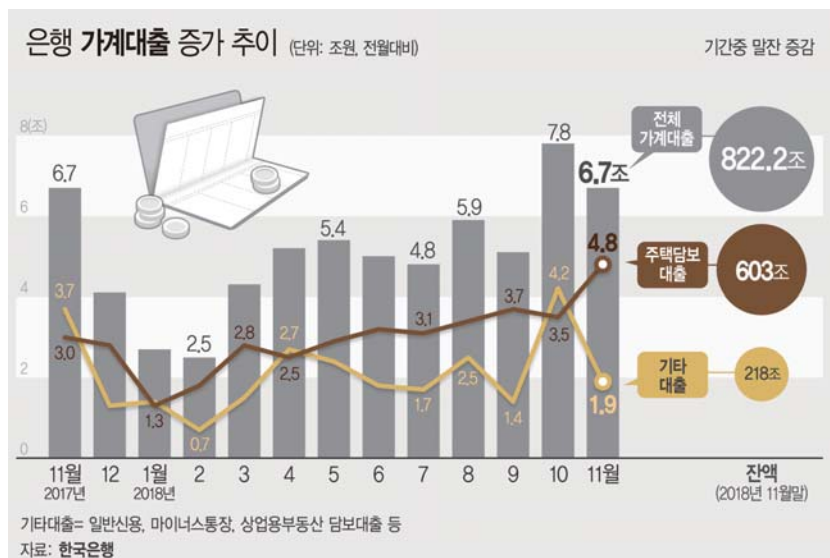
카드정보 조회를 통해서도 보유 현황이나 이용한도, 휴면카드 여부, 연체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정보 조회를 통해서도 카드사별 잔여포인트와 소멸 예정포인트를 볼 수 있다.

서비스는 금감원의 '핀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는 PC 인터넷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잊고있던 휴면카드와 포인트를 조회해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정리하고, 포인트 활용을 촉진해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 주택대출 600조 돌파 규제에도 2년째 최대 증가

한국은행, 전세대출 증가세에 기승인 중도금 대출 늘어난 영향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나며 600조원을 첫 돌파했다. 12일 한국은행의 11월중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위원회의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7000억원 증가한 82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증가액(738800억원)보다 다소 축소되긴 했으나 지난해 11월(6조7000억원)과는 같은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 603조원을 나타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9월 3조7000억원, 10월 3조3500억원으로 주춤해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된 것이다. 증가 규모는 지난해 7월(4조8000억원)과 같고, 2018년 11월(6조1000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다.

한은은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데다 이미 승인된 중도금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거래 증가로 자금 수요 자체가 늘고, 지난 10월말 본격화된 새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에 앞서 물렸던 대출이 심사를 거쳐 지난달 대거 실행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2000호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4000호)보다 훨씬 많았다. DSR 규제로 주택매매를 위한 대출 받기가 간간해지면서 전세를 택한 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반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기타대출은 218조원으로 전월 증가액(4조2000억원)의 반토막 수준인 1조9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카드값 결제 수요 등이 줄어든 측면도 있으나 신

용대출까지 육박하는 DSR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늘어 전월(2조7000억원)보다 증가액이 축소됐다. 신용대출은 1조6000억원 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8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세는 전월대비보다 전년동월대비로 각 2조원, 2조4000억원 축소된 수준이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증가규모는 6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84조5000억원)보다 16조원 가량 줄었다.

금감원은 “올 11월까지 증가규모는 지난 2015~2017년과 비교해 최저 수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차츰 안정화되는 추세”라며 “9.13 대책 후속조치, 은행권 DSR 시행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계대출 취급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기업대출은 830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났다. 중소기업 대출은 연말 실적평가에 대비한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으로 증가규모가 전월 2조7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중 자영업자가 주로 빌리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2조4000억원 증가한 313조5000억원을 나타냈다. 2조5000억원 늘었던 지난 8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대기업 대출은 157조원으로 지난달 4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 규모(1조8800억원)보다는 축소됐다.

aT “올해 신선농산물 수출 역대 최고 확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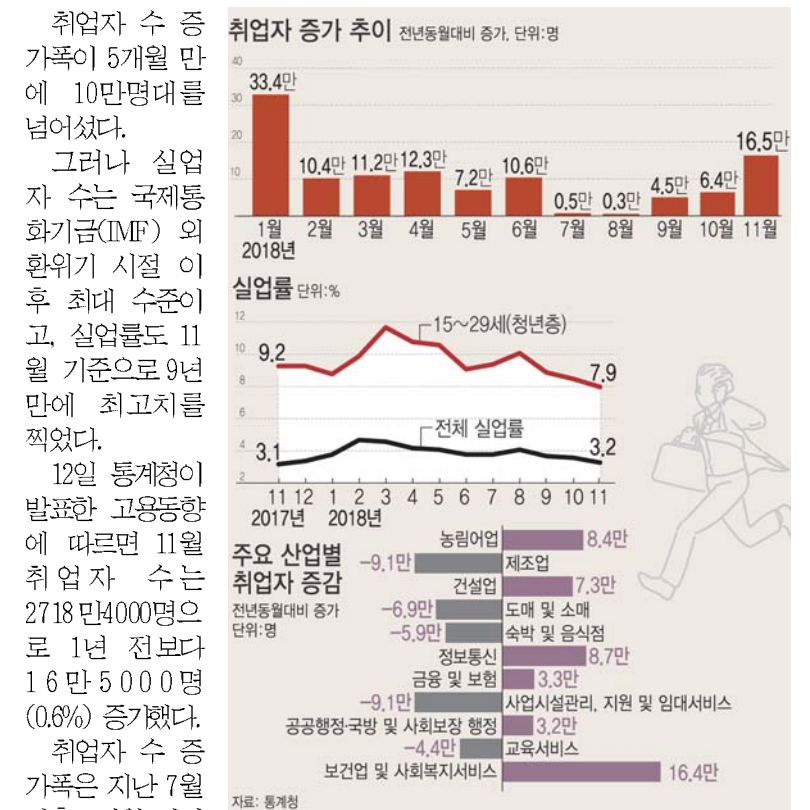
올해 신선농산물 수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 농산물 수출 동향(잠정치) 및 수출사업 추진내역을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농산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4% 증가한 63억7000만 달러였다.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11억

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8.9% 늘었다. 역대 최고액인 2013년 11월 말의 10억8000만 달러를 6.9% 넘어선 수치다. 품목별로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홍삼·뿌리삼 수요 증가로 인삼류(1억6900만 달러)가 1년 전보다 28.5% 늘었다. 한국산 포도(1270만 달러·56%)와 배(6950만 달러·21.0%), 딸기(3850만 달러·11.0%)의 수출 증가

로 과실류(2억7800만 달러)와 채소류(2억5000만 달러)도 1년 전보다 15.8%, 7.5% 각각 늘었다. 주요 국가별로는 일본은 파프리카(6.0%)와 김치(24.3), 중국은 인삼(47.9)과 유자차(22.0), 미국은 배(16.1)와 인삼(14.8) 수출이 크게 늘었다. 아세안(K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의 경우 한류 열풍에 힘입어 신선농산물 수출이 11월 말 기준 1년 전보다 43.9%나 급증했다.

실업자 수 외환위기 이후 ‘최대’

실업률 9년째 최악...청년층 실업률, 취업생 제외 인한 착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개월 만에 10만명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실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환위기 시절 이후 최대 수준이고, 실업률도 11월 기준으로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는 271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5000명(0.6%)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1월(33만4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000명·0.8%), ‘정보통신업’(8만7000명·11.2%), ‘농림어업’(8만4000명·6.2%), ‘건설업’(7만3000명·3.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2000명·2.9%)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관광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1000명(-2.0%) 줄어 10월(-4만5000명·-1.0%)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점업이 1년 전보다 5만8000명(-2.6%) 감소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9만1000명(-6.6%), ‘도소매업’ 6만9000명(1.8%), ‘교육서비스업’ 4만4000명(-2.3%)도 일제히 줄었다.

중상위권 취업자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만3000명(2.5%), 일용근로자는 2만000명(1.4%) 각각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11만6000명(-2.3%) 줄었다. 이중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지표의 개선 덕에 13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 2017년 10월(1만6000명) 증가를 마지막으로 12개월 연속 내리막을 보여왔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9%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청년층 취업생 제외 인한 착시

고용률은 61.4%로 1년 전과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는 9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4.4%) 증가했다. 실업자 수가 90만명을 웃돈 것은 11월 기준으로 1999년 105만5000명 이후 처음이다.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9년(3.3%)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9%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청년층 취업생 제외 인한 착시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통계에서는 빠진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를 보여주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1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1000명(0.3%) 증가했다. 이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포함한 취업준비생은 70만1000명으로 6만9000명(10.9%) 늘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실업률 감소에도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21.6%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